

편도암의 근치적 치료결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학교실,¹⁾
이비인후과학교실,²⁾ 혈액종양내과학교실³⁾

박 원¹⁾ · 남희림^{1)*} · 안용찬¹⁾ · 백정환²⁾ · 손영익²⁾ · 박근철³⁾

목 적 : 편도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목적의 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들의 치료성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95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편도의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목적의 치료가 시행된 27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환자들에 대한 국소치료법의 결정은 두경부 종양 협진팀에서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방사선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기준은 1) 환자측 요인으로 전신마취와 수술의 위험이 큰 경우, 2) 환자의 수술 거부, 3) 근치적 수술절제가 여의치 않거나, 4) 수술 후 기능장애가 클 것으로 예견된 경우 등이었다. 국소치료법으로 수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선별적으로 추가한 경우가 17명이었고(S±RT군), 근치적 방사선치료 단독 혹은 동시병용 방사선-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가 10명이었다(RT±CT군). 대상 환자들에 대한 추적관찰기간은 3~94(중앙값 41)개월이었다.

결 과 : AJCC 병기는 I~II병기가 4명, III병기가 2명, IV

병기가 21명이었다. 전체 환자의 5년 무병생존율은 73.3%였고, S±RT군과 RT±CT군 각각 70.6%와 77.8%였다. 관찰기간 중 모두 7명에서 재발이 발현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III~IV병기 환자들이었고 치료개시 후 2년 이내에 재발하였다. S±RT군에서는 국소재발 2명, 영역재발 2명, 원격전이 1명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 재발하였고(조재발율=29.4%), RT±CT군에서는 국소+영역재발 1명, 원격전이 1명을 포함하여 2명이 재발하였다(조재발율=20%).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7.0%였고, S±KT군과 RT±CT군 별로는 각각 80.9%와 70.0%였다.

결 론 : 저자들은 편도암에 대한 국소치료법으로서 수술을 주로 적용한 경우와 방사선치료를 주로 적용한 경우 모두에서 다른 문헌들에서 보고되는 국소제어율, 생존율과 비슷한 수준의 비교적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소적으로 진행된 편도암에서 방사선치료를 근간으로 하는 치료법은 수술에 의한 기능장애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